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사회문제지수를 중심으로

황 선 재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과의 관계를 이론적, 경험적, 그리고 비교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 통합과 응집성을 낮추고 개인 간의 지속적인 지위경쟁을 유발하여 각종 병리 및 사회해체적 현상을 낳는다는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오늘날 한국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회위험 요소들의 증가를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연결 지어 설명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Wilkinson과 Pickett이 고안한 건강·사회문제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건강·사회문제지수로 측정된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횡단자료 분석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시계열분석에서도 소득불평등도와 사회적 위험 수준은 전반적으로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와 위험현상의 본질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해결에의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불평등, 소득불평등, 불평등의 결과, 사회문제, 사회적 위험, 건강·사회문제지수

본 논문의 초고는 2014년 10월에 있었던 비판사회학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동 학회에서 본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신광영, 장지연, 홍찬숙, 김영미, 신진욱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 오형석 중앙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생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투고일: 2014.10.28 ■ 수정일: 2014.12.16 ■ 게재확정일: 2015.2.6

I. 들어가는 말

21세기 대한민국, 우리는 놀라운 패러독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유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사람들은 늘 정신적 빈곤에 허덕이며 산다. 높아지는 각종 경제발전 지표와 함께 늘어가는 것은 불안하고 우울한 오늘이며, 손에 잡히지 않는 내일이다. OECD 최고수준의 자살률, 미혼·이혼·저출산으로 대표되는 사회재생산의 위기, 그리고 각종 사회문제는 이러한 패러독스가 낳은 편린들에 불과하며, 사회 곳곳에는 또 다른 위험요소들이 무수히 자라고 있다. 이와 같은 패러독스의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그 주요 원인을 증가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하 불평등)으로 보고,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결과와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불평등의 증가와 양극화이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외환위기 이전,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불평등으로 특징 지워졌던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각종 불평등 지표에서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신광영, 2013; Hwang, 2012; OECD, 2011). 이는 통계상에서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증가, 빈곤율, 청년실업, 노동소득분배율, 실질임금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체감되고 있으며, 시장질서를 강화하는 각종 정책들과 맞물려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현실 가까이에서 실존하는 사회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불평등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말하지만, 왜 그것이 사회문제인지에 대한 진지한 일상적, 학술적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불평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불평등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 ‘불평등이 왜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결과와 함의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불평등의 결과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건강 및 보건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불평등의 결과를 상호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불평등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증가하는 불평등 문제에 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불평등이 야기하는 각종 사회병리와 위험현상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건강·사회문제지수(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를 활용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장에서는 증가하는 불평등이 야기하는 결과 및 함의, 그리고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한다. 경험적인 분석을 다루는 III장과 IV장에서는 Wilkinson과 Pickett이 국제비교를 위해 고안한 건강·사회문제 지수를 소개하고, 이를 한국사회에 적용 및 재산출한 뒤, 한국사회 불평등의 증가와 해당 지수와의 관계를 시공간적으로 비교연구한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토론을 다루는 V장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사회,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불평등의 결과와 함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득불평등, 재산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혹은 사회이동)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왔다. 각각의 불평등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원인, 기제, 결과 및 함의에서 차별성을 띠므로 상호 연관 속에서 따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도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다른 불평등 영역보다 보편성, 분석적 개념의 명확성, 자료의 가용성 등에서 수월한 위치에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도 자주 활용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 역시 사회경제적 불평등 중 소득불평등의 결과 및 함의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연구는 소득불평등의 결과 및 함의를 경제, 정치, 사회, 건강·보건의 영역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Hwang, 2012; Neckerman & Torche, 2007). 우선 소득불평등의 경제적 함의를 다루는 연구는 주로 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가 존재한다.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아졌다가 나중에는 다시 낮아진다는 Kuznet의 ‘역U자 가설’부터, 소득불평등이 경쟁과 인센티브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 그리고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잠재력을 낮출 뿐 아니라 최근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입장까지 다양하다(Kuznet, 1955; Rajan, 2010; Stiglitz, 2000).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험적인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채구목·김철주, 2008; OECD, 2011; Ostry et al., 2014; Stiglitz, 2012).

둘째, 소득불평등의 정치적 함의를 다루는 연구들은 주로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재분배에 대한 정치적 요구로 이어져 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강명세, 2013; Meltzer & Richard, 1981). 다시 말해,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정치와 정권에 대한 불만족을 높이고, 유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치인과 정치적 집단이 나타나면서 정치라는 기제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 가설에 대한 경험적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Lenz, 2004),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예상과는 달리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소득상층의 정치적 목소리는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소득중하위계층은 점차 정치적 절차 및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Bonica, McCarty et al., 2013).

셋째, 사회적 영역에서의 함의를 다루는 연구는 주로 소득불평등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도 사회자본, 신뢰, 응집성, 통합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강철희·이상철, 2013; 현승숙·금현섭, 2011; Putnam, 2001; Wilkinson, 1997).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간극을 넓히고 유대를 약화시킨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사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는데(McPherson et al., 2001), 불평등의 증가는 구성원들 간의 유무형의 이질성을 증가시켜 상호간의 응집성과 통합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한 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자본은 감소하는 반면, 자살률, 범죄율, 살인율, 정신질환과 같은 사회해체적인 증상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esina & La Ferrara, 2002; Costa & Kahn, 2003; Skocpol, 2003).

마지막으로, 건강·보건 영역에서는 불평등의 증가가 각종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인적, 그리고 집합적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김도영, 2012; 김진영, 2007; 김형용, 2010; 김혜련, 2007; 송인한·이한나, 2011; 이미숙, 2005; 이준협 외, 2009). 소득불평등, 즉 상대소득 격차의 증가는 사회구성원 간 지위경쟁(status competition)을 심화시켜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살, 비만 등과 같은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병리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분석단위를 국가수준으로 높여 보아도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 위와 같은 병리현상이 더 많이 나타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Kawachi & Kennedy, 1999; Wilkinson & Pickett, 2009).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흥미 있는 논의 중 하나는 ‘소득불평등(상대소득)’ 효과와 ‘소득차이(절대소득)’ 효과에 대한 구분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사회, 건강문제는 사회구성원, 혹은 집단 간 절대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분포(social distribution)를 떠는 경향이 있다. 즉 절대소득이 높은 개인이나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앞서 언급한 병리적 현상을 덜 겪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집단 내 소득불평등 혹은 상대소득의 정도 역시 사회, 건강문제에 독립적인 영향일 미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동일한 소득수준을 보이는 집단들도 보다 더 평등한 사회에 살 경우 각종 병리적 현상을 덜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 나아가 그 효과는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더 커서, 절대소득과 불평등 사이에는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까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¹⁾

결과적으로 한 집단, 혹은 사회 내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각종 사회문제와 병리현상이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이 둘을 잇는 구체적인 기제와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구성원들 간의 경제적 거리와 계층 간의 격차를 넓힌다. 이는 다시 사회문화적 차이의 증가를 낳고, 개인 간 사회·경제·문화적 이질성의 증가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넓히는 동시에 사회적 응집성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불평등한 사회 속의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본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의식하게 되며, 이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지속적인 지위경쟁으로 이어져 다양한 병리현상을 낳는다.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각종 사회문제와 건강문제를 악화시키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집합적인 수준에서도 높아진 개인 간 이질성과 낮아진 사회통합과 응집성으로 인해 각종 사회해체적 현상(예. 낮은 사회적 신뢰수준, 높은 살인율 등)으로 이어진다. 이는 절대적인 소득수준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소득불평등의 독립적인 효과이며,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의 결과 및 함의, 그 중에서도 사회 및 건강영역에서 나타나는 각종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방법론적으로는 한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 건강문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Wilkinson과

¹⁾ 하지만 고소득층 역시 소득불평등이 낮은 사회에서 살 경우 사회, 건강문제를 덜 겪는 경향이 있으므로, 낮은 소득불평등에서 오는 ‘평등효과’가 저소득층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Pickett(2009)이 고안한 건강·사회문제지수(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에 기초하여, 증가하는 불평등과 각종 사회적 위험 간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둘을 잇는 기제, 결과 및 함의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건강·사회문제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한국사회를 포함한 국제비교에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III.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간의 관계 측정: 건강·사회문제지수 (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Wilkinson과 Pickett(2009)이 고안한 건강·사회문제지수를 활용한다. 한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적 위험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이 지수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는 10개의 서로 다른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사회적 신뢰, 평균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비만, 정신질환, 학업성취도, 십대출산율, 살인율, 수감률, 사회(비)이동성). Wilkinson과 Pickett은 그들의 연구에서 주요 선진국들²⁾을 대상으로 해당 지표에 대한 통계를 수집한 뒤, 각 지표별 표준화점수를 국가별로 합산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지수를 산출³⁾ 하였다. 이 지수와 해당 국가의 소득불평등(5분위 소득배율)⁴⁾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수준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를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 원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총 23개국으로 호주, 그리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벨기에, 이스라엘, 스페인, 캐나다, 이태리, 스웨덴, 덴마크, 일본,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독일, 노르웨이 등이다. Wilkinson과 Pickett은 이들 선진국의 경우 더 이상 소득수준의 증가가 각종 삶의 지표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각종 통계분석결과에 착안, 선진국들 사이에 나타나는 삶의 질 지표 차이(variation)는 소득수준(level)이 아닌 소득불평등(inequality)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 중 자료가용성 등에 근거하여 위의 23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그 사회의 삶의 질과 사회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소득수준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Wilkinson과 Pickett이 활용한 지표표준화와 지수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지표별로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구한 뒤, 국가별로 해당 지표의 표준화점수(z-score)를 산출한다($z = (\text{개별국가의 해당 지표점수} - \text{해당지표의 전체 평균}) / \text{해당지표의 표준편차}$). 이렇게 산출한 지표별 표준화점수를 국가별로 합산, 이를 다시 포함한 지표수의 숫자로 나눈 '평균 표준화점수를 최종 분석지수로 활용하였다.

4)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는 다양하나 Wilkinson과 Pickett(2009)은 5분위소득배율(소득상위 20%의 전체소득을 소득하위 20%의 전체소득으로 나눈 값)을 활용하고 있다.

표 1. 건강·사회문제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에 대한 정의 및 자료원천

지표	정의 및 자료 원천	한국자료 원천
사회적 신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백분율 (World Values Survey, 1999-2001)	2003년 한국종합사회조사
평균기대수명	전체인구의 출생 시 기대여명 (UN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좌동
영아사망률	출생아 1000명당 사망자 수 (OECD, 2005)	좌동
비만	전체 성인인구 중 BMI지수가 30이상인 사람의 백분율 (International Obesity Taskforce, 2002)	2001년 OECD
정신질환	전체 성인인구 중 지난 12개월간 정신질환 유병률 (WHO, 2001-2003)	200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학업성취도	15세 (학생)의 수학점수와 읽기점수의 합 (OECD,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03)	좌동
십대출산율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 (UNICEF, 1998)	좌동
살인율	인구 백만명당 살인 피해자수 (UN, 1999-2000)	좌동
수감률	인구 십만명당 수감자 수의 log값 (UN, 2000)	좌동
사회(비)이동성	부자(父子) 소득의 상관관계 계수 (London School of Economics)	(자료 없음)

주: Wilkinson과 Pickett이 원 분석에 활용한 지표와 지수화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저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http://www.equalitytrust.org.uk/resources2/spirit-level/methods>)를 참고할 것.

선행연구에 따르면 건강·사회문제지수에 포함된 개별 지표는 소득불평등이 높아질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an de Werfhorst & Salverda, 2012; Wilkinson & Pickett, 2009). 우선 첫 번째 지표인 사회적 신뢰 변수와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증가시키고, 이는 타인을 나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을 떨어뜨림으로서 상호간의 신뢰수준 역시 낮추는 인과효과(causal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utnam, 2001; Uslaner, 2002). 다음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는 평균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비만도, 정신질환 등의 육체적·정신적 문제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거리와 지위차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위획득에 대한 인식과 경쟁을 유발하여 각종 스트레스와 지위불안(status anxiety)을 증가시킨다. 낮은 수준의 사회적 관계 및 연대, 지위경쟁에서 오는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은 <표 1>에 포함된 각종 육체적·정신적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 뒤에도 나타나는 독립적인 집단효과(group effect)로 알려져 있다(Ball, Mishra, & Crawford, 2003; Geronimus, Bound, Waidmann, Colen, & Steffick, 2001; Kawachi & Kennedy, 1999; Kawachi et al., 1997; Subramanian & Kawachi, 2004). 마지막으로,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높아질수록 각종 교육기회와 학업성취도의 계층 간 격차 역시 커지며, 이는 세대 간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각종 일탈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jnzylber et al., 2002; Lawlor & Shaw, 2002; Teachman, 1987).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Wilkinson과 Pickett은 <표 1>에 정리된 10개의 지표를 선택, 국가별 건강·사회문제지수를 도출하였으며, 이렇게 산출된 지수 역시 소득불평등과 높은 정비례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Wilkinson과 Pickett의 원 분석에서 한국의 사례는 빠져있는 바, 필자는 두 연구자에게 직접 원자료를 요청하여 이와 가장 가까운 형태 및 시기의 한국 자료를 추가한 뒤, 국가별 종합지수를 재산출하는 방식으로 횡단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한국자료의 원천은 <표 1>의 마지막 열 참조).

나아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시계열자료(1993-2012년)를 구축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수준의 관계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기존 분석에 포함된 10개의 지표중 대다수의 지표에 충분한 시계열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수정작업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원래 건강·사회문제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10개 지표 중 가용한 한국 시계열자료가 충분히 존재하는 지표를 최대한 포함시키고,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몇 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건강·사회문제지수를 재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증가하는 불평등과 관련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위험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사회현상에는 사회해체와 사회재생산의 위기가 있다(신광영, 2013). 이 두 현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지표들에는 자살률, 합계출산율, 미혼율, 이혼율, 우울증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한 뒤, 기존의 건강·사회문제지수에 포함된 지표들과의 선별적인 조합을 통해 새로운 한국지수를 도출하였다.⁵⁾

하지만 추가된 지표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시계열분석의 경우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추정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견고성(robustness)을 높이고자 하였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한국지수는 기존 분석에 포함된 10개의 지표 중 한국자료가 가용한 9개의 지표에 사회해체와 재생산의 위기를 나타내는 4개의 지표들(자살률, 합계출산율, 미혼율, 이혼율, 우울증)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두 번째 유형의 한국지수는 첫 번째 유형에 포함된 13개의 지표 중 영아 사망률과 십대출산율과 같이 한국적 맥락에서는 불평등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제외하고, ‘정신질환’ 지표를 보다 직접적이고 장기간의 시계열자료가 확보 가능한 ‘우울증’ 지표로 대체하였다. 기존 분석과 한국 시계열 분석을 위해 새롭게 추가된 지표의 비교목록은 <표 2>에 정리되어있다.

표 2. 건강·사회문제지수의 재구성: 지수유형별 지표목록

지표	원유형	한국지수 I	한국지수 II
사회적 신뢰	○	○	○
기대수명	○	○	○
영아사망률	○	○	
비만	○	○	○
정신질환	○	○	
학업성취도	○	○	○
십대출산율	○	○	
살인율	○	○	○
수감률	○	○	○
사회(비)이동성	○		
자살률		○	○
합계출산율		○	○
미혼율		○	○
이혼율		○	○
우울증			○
총 지표 수	10	13	11

5) 물론 추가 지표에 대한 선택 역시 자료가용성에 의존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증가하는 불평등의 결과 및 함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참고하여 사회해체현상과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취사선택하였다. 자살률, 합계출산율, 미혼율, 이혼율 관련 시계열 통계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그리고 우울증 관련 통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에서 추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원자료에 관심이 있을 경우, 저자에게 직접 이메일로 요청하기 바란다.

IV. 분석결과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두 종류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Wilkinson과 Pickett의 원자료에 한국자료를 더해 기존의 건강·사회문제지수를 재산출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사회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기존의 지표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한국 사회 만을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표 3>은 첫 번째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표는 각 지표와 소득불평등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 각 지표별 한국의 상대적 순위, 그리고 마지막 행에 모든 지표의 표준화점수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산출한 건강·사회문제지수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표 3.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간의 상관관계분석: 한국사례를 포함하여

지표	소득불평등과의 상관관계	사회적 위험 지표의 한국 순위
사회적 신뢰	-0.603	13위/22개국
기대수명	-0.489	17위/22개국
영아사망률	0.815	6위/22개국
비만	0.559	2위/22개국
정신질환	0.711	7위/13개국
학업성취도	-0.419	2위/21개국
십대출산율	0.726	1위/22개국
살인율	0.557	18위/22개국
수감률	0.652	20위/22개국
사회(비)이동성	0.923	(자료 없음)
건강·사회문제지수	0.875	7위/22개국

먼저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의 소득불평등과 각 지표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선행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⁶⁾ 즉, 소득불평등 수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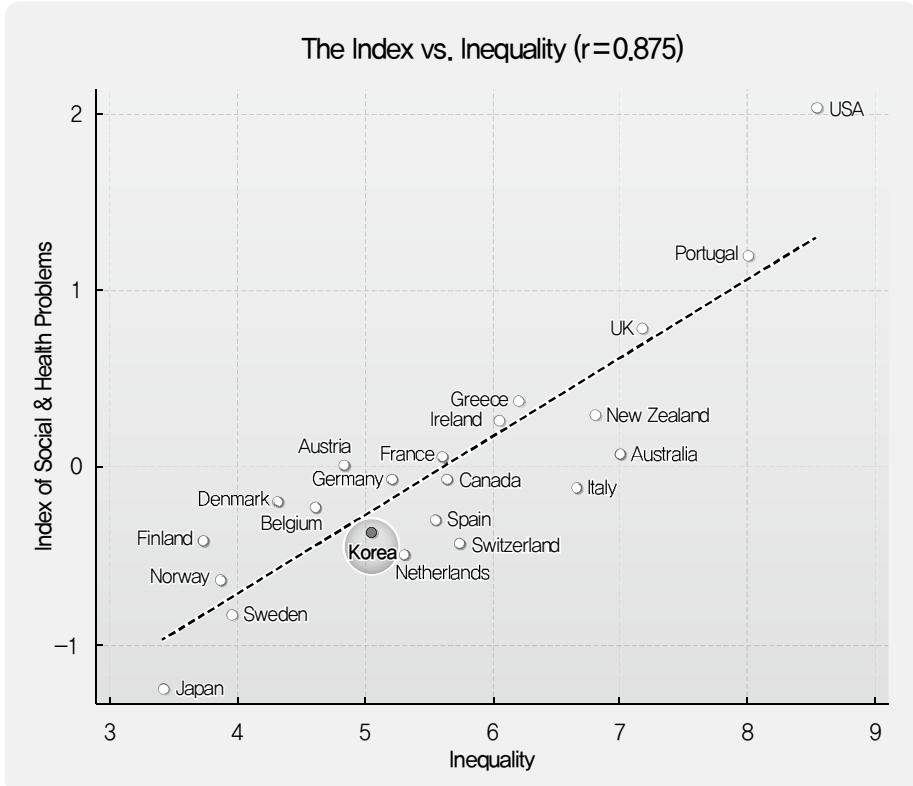
⁶⁾ Wilkinson과 Pickett은 앞서 언급한 23개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최종지수산출에는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를 제외시켰다(총 10개의 개별 지표 중 8개 이상 지표 값 자료를 가진 국가만을 최종지수산출에 포함시켰기 때문). 본 연구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의 23개국 중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21개국에 한국의 사례를 더한 22개국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소득불평등과 개별지표의 상관관계 분석의 경우, 경우에 따라 22개국 모두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고, 기대수명이 낮으며, 영아 사망률은 높다. 비만율과 정신질환 역시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높으며, 언어와 수학 점수로 대표 되는 학업성취 수준은 낮고, 십대출산율은 높다. 또한 살인율, 수감률, 그리고 사회적 비이동성 수준 역시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과의 상관관계 강도는 지표별로 상이하지만 모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그 중 영아사망률, 정신질환율, 십대출산율, 그리고 사회적 비이동성 등이 소득불평등과 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원자료 값에 기초한 각 지표별 순위는 1위(좋은)부터 20위(나쁨)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십대출산율, 학업성취도, 비만도와 같이 아주 양호한 지표에서 부터, 수감률, 살인율, 평균기대수명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인 지표도 있었다.

다음으로 10개의 지표들을 표준화하여 국가별로 산출한 건강·사회문제지수와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는데, <표 3>의 제일 마지막 행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변수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r=0.875$)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⁷⁾ 이는 [그림 1]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분석 대상이 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요약 하고 있는 선형회귀선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은 사회 일수록 건강·사회문제지수로 측정된 사회적 위험 수준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건강·사회문제지수 점수는 전체 22개국 중 7위로 나타났으며, [그림 1]의 추정된 선형회귀 선에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는 바, 자료가 수집된 기간인 2000년 대 초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사회는 회귀분석 결과가 예측하는 소득불평등도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회적 위험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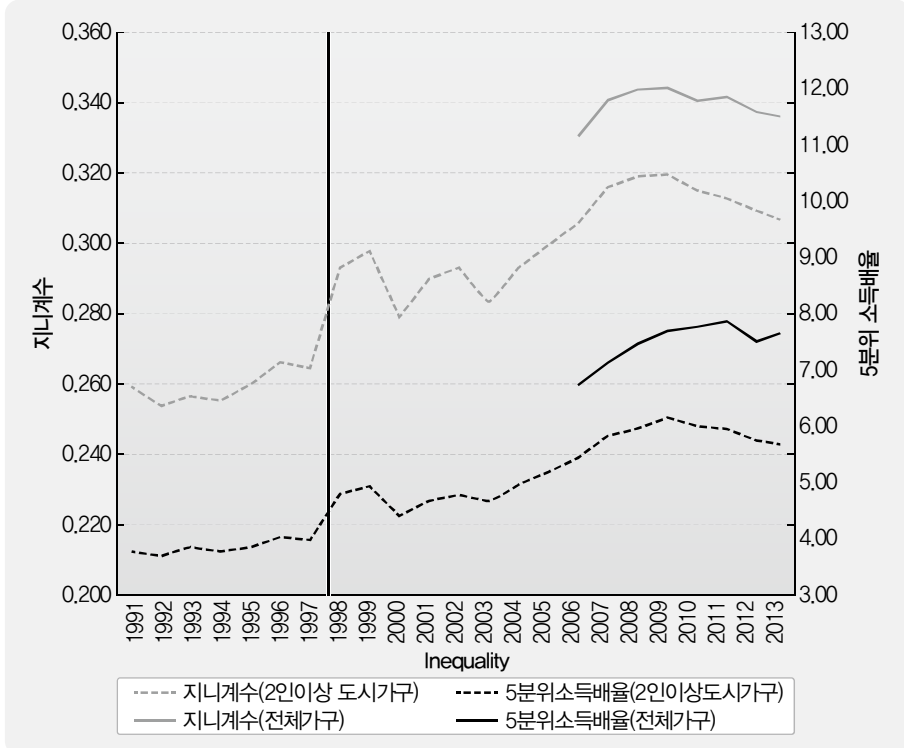
7) 물론 이러한 상관관계(correlation)가 항상 인과관계(causation)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1. 소득불평등과 건강·사회문제지수 간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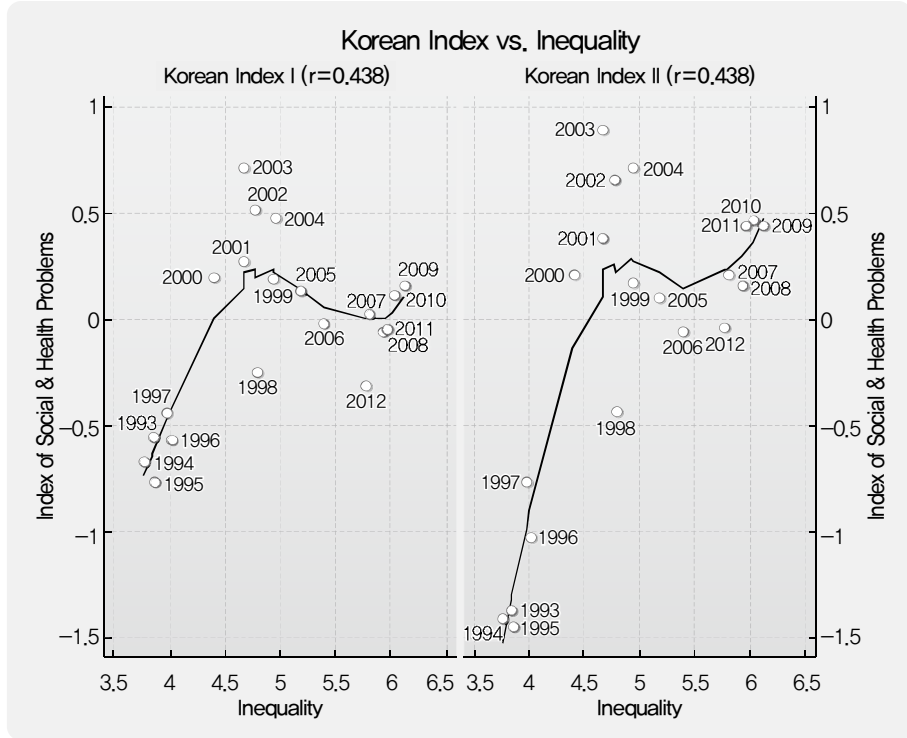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국가 간 횡단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사회 내에서도 불평등이 증가하면 사회적 위험 수준 역시 높아질 것이라 볼 수 있는가? 이는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도와 건강·사회문제지수에 대한 과거 시계열자료를 구성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두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선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도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990년 중반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후 다소 안정된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 1991-2013



다음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건강·사회문제지수 시계열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앞서 살펴 본 <표 2>에 포함된 지표들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2년까지의 통계를 수집하여 ‘한국 건강·사회문제지수 I’과 II를 도출하였다.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한국지수 I’의 경우 원 지수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시계열 자료의 유무에 관계없이 원 지수에 포함되어 있던 10개의 지표 중 한국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동성 지표를 제외한 9개를 모두 포함시킨 상태에서 한국사회의 특수성(사회 해체와 재생산의 위기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살률, 합계출산율, 미혼율, 이혼율 등의 4개의 지표를 더한 총 13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반면 ‘한국지수 II’의 경우 ‘한국지수 I’에 포함된 13개의 지표 중, 오늘날 한국사회의 문제와 사회적 위험 수준을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계열 자료가 확보된 지표들로만 취사선택하여 총 11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⁸⁾

그림 3. 소득불평등과 한국 건강·사회문제지수 I, II: 1993-2012



[그림 3]은 1993년과 2012년 사이 측정된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도와 한국지수 I, II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각 그래프 상의 점들은 개별 연도를 나타내고, 점들을 관통하는 실선은 비모수 추정방법의 일종인 LOWESS 곡선분석의 결과를 나타낸다.⁹⁾ LOWESS를 통해 추정된 두 변수 사이의 패턴은 앞 서 살펴본 [그림 1]이 보여주는 강한 선형관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불평등이 높은 해에 건강·사회문제 지수 수준 역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어슨 상관계수로 측정된 두 변수의 관계 역시

8) 한국지수 구성을 위해 새로 포함된 5개의 지표(자살률, 합계출산율, 결혼율, 이혼율, 우울증)와 소득불평등과의 상관관계는 각각 0.942, -0.779, -0.770, 0.466, 0.911로,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자살률, 이혼율, 우울증은 높은 반면, 합계출산율과 결혼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그림 1]에서처럼 특정한 함수관계(선형관계)를 상정한 모수적 추정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LOWESS와 같은 비모수적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 시계열 자료분석의 경우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형적, 경험적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모수적 방법을 통해 특정 함수관계를 강제(impose)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지수 I’의 경우 0.438, 그리고 ‘한국지수 II’의 경우 0.638으로 국가 간 횡단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r=0.875$)보다 크지 않지만,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시계열 자료의 분석 결과 역시 소득불평등도와 건강·사회문제지수는 전반적으로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V.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과의 관계를 이론적, 경험적, 그리고 비교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질성이 증가하고, 이는 사회적 통합과 응집성을 낮출 뿐 아니라 개인 간의 지속적인 지위경쟁을 유발하여 각종 병리 및 사회해체적 현상을 낳는다는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오늘날 한국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회적 위험 요소들의 증가를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Wilkinson과 Pickett이 고안한 건강·사회문제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건강·사회문제지수로 측정된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횡단자료 분석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으며, 한국사회 만을 대상으로 한 시계열분석에서는 횡단자료 분석결과에서 보이는 만큼의 강도는 아니었으나, 소득불평등도와 사회적 위험 수준은 전반적으로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론에서 언급한 ‘증가하는 불평등이 왜 문제인가? 이를 문제로 보아야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소득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수준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한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수준(평균)이 증가하는 한 상대소득, 즉 소득불평등(분산)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소득불평등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사회구성원의 근로의욕과 동기를 감소시켜 경제성장 및 절대소득의 증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¹⁰⁾ 한국 시계열자료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두 변수의 관계가 선형이라기보다는 비선형관계에 가깝게 나타나므로 사실 두 변수 사이의 선형성을 측정하는 피어슨 상관계수의 적용과 해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앞서 이루어진 횡단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실시하였다.

물론 소득수준의 증가가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정수준의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긴장을 유발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위험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함에 있어 소득불평등은 소득수준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이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어도 소득수준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 역시 제고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수준과 사회적 위험 수준 간의 관계를 관련 시공간 상에 위치지움으로써,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소득불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지만, 소득불평등의 정도 역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도와 사회문제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 내의 비교 역시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한 국제비교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경우 소득 불평등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위험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사회만을 대상으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지난 20여 년간의 시계열 분석결과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 내에서도 각종 사회문제는 소득불평등에 기반한 사회적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각종 사회해체적 현상과 사회적 위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소득불평등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상기의 함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를 조금 더 발전시켜야하는 과제가 존재한다. 먼저,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발견되는 소득불평등과 사회문제 간에 발견되는 정비례 관계를 완전한 인과관계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소득불평등이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각종 사회문제가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역인과관계(reverse causation)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학업성취도의 경우, 높은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학업성취도의 원인일 수 있지만, 반대로 낮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두 변수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temporal priority)를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종단자료를 활용하거나, 둘을 잇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기제(mechanism)을 밝히고 상술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사이의

인과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보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으나,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이라는 두 변수 사이의 물리적, 시간적 거리가 워낙 멀어 이 둘 사이에 많은 변수들이 개입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을 보다 직접적이고 강하게 잇는 중간 변수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강·사회문제지수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지수구성은 크게 어떤 지표를 선택할 것인가와 선택된 지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합(가중평균)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뉘는데,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물론 이는 기존의 연구를 응용 및 적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고,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수를 재구성 할 때에도 나름의 이론적, 경험적 논의에 근거하여 지표를 선택하였지만, 모든 지수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지표선택과 지수구성의 자의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본 연구에서 시도되었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지표를 선택하고 지수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 견고성(robustness)을 높여나가는 것인데, 이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지수보다 더 효과적으로 한국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수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21세기 대한민국, 이제는 물질적 안녕보다 사회·심리적 안녕, 그리고 총체적인 삶의 질 문제를 제고해야할 시기이다. 경제와 소득수준의 향상이 가져다주는 한계효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요구 되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물질적 발전이라기보다는 발전의 성격에 대한 고민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재고임을 밝히고 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해결에의 노력을 통해, 오늘날 부각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와 위험현상에 대해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황선재는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사회학 박사학위와 통계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연구교수 및 BK21PLUS '복합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사업팀 신진연구인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사회계층과 불평등, 사회인구학, 그리고 통계적 방법론 등이다.
(E-mail: sunjaeh@gmail.com)

참고문헌

- 강명세(2013). 재분배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47(5), pp.71-94.
- 강철희, 이상철(2013). 한국인의 보편적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4), pp.1-28.
- 김도영(2012). 소득수준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 변화 분석. *사회과학연구*, 23(3), pp.105-125.
- 김진영(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한국사회학*, 41(3), pp.127-153.
- 김형용(2010). 지역사회 건강불평등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44(2), pp.59-92.
- 김혜련(2007). 우리나라에서 흡연율의 사회계층별 불평등과 변화추이. *보건사회연구*, 27(2), pp.25-43.
- 송인한, 이한나(2011). 사회경제적 박탈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12(3), pp.33-51.
- 신광영(2013). *한국 사회불평등 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 이미숙(2005). 한국 성인의 건강불평등: 사회계층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6), pp.183-209.
- 이준협, 윤병준, 정형선(2009). EQ-5D로 측정된 소득 계층별 건강집중지수의 분해. *보건과 사회과학*, 26, pp.67-87.
- 채구묵, 김철주(2008). 소득재분배정책과 경제성장. *한국사회학*, 42(5), pp.1-30.
- 현승숙, 금현섭(2011). 지역 내 소득불평등도에 따른 주민참여. *한국행정학보*, 45(2), pp.159-186.
- Alesina, A., La Ferrara, E. (2002). Who trusts oth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5(2), pp.207-234.
- Ball, K., Mishra, G. D., Crawford, D. (2003). Social factors and obesity: an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the health behaviour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and Related Metabolic Disorders*, 27(3), pp.394-403.
- Bonica, A., McCarty, N., Poole, K. T., Rosenthal, H. (2013). Why hasn't democracy slowed rising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pp.103-124.
- Costa, D. L., Kahn, M. E. (2003). Understanding the American decline in social capital, 1952-1998. *Kyklos*, 9(1), pp.17-46.

- Fajnzylber, P., Lederman, D., Loayza, N. (2002). Inequality and violent crim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5, pp.1-40.
- Geronimus, A. T., Bound, J., Waidmann, T. A., Colen, C. G., Steffick, D. (2001). Inequality in life expectancy, functional status, and active life expectancy across selected black and white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38(2), pp.227-251.
- Hwang, S.-J. (2012). *Socioeconomic polarization and personal well-being under neoliberal restructuring: implications of South Korea after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 Kawachi, I., Kennedy, B. P. (1999). Income inequality and health: pathways and mechanisms. *Health Service Research*, 34(1), pp.215-227.
- Kawachi, I. Kennedy, B. P., Lochner, K., Prothrow-Stith, D. (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9), pp.1491-1498.
- Kuznets, S.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5, pp.1-28.
- Lawlor, D. A., Shaw, M. (2002). Too much too young? Teenage pregnancy is not a public health problem.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1(3), pp.552-554.
- Lenz, G. S. (2004). The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for redistributiv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In K. Neckerman (Ed.), *Social inequality*,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pp.1-14.
- McPherson, M., Smith-Lovin, L., Cook J. M. (2001). Birds of a feather: homophily in social network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pp.415-444.
- Meltzer A. H., Richard, S. F. (1981). A rational theory for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pp.914-927.
- Neckerman, K. M., Torche, F. (2007). Inequality: cause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 pp.335-357.

- OECD. 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 Ostry, J. D., Berg, A., Tsangarides, C. G.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utnam, R. D. (2001). Social capital: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ISUMA: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 pp.41-51.
- Rajan, R. 2010. *Fault lines: how hidden fractures still threaten the world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kocpol, T. (2003). *Diminished democracy: from membership to management in American civic life*.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Stiglitz, J. E. (2000).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economic growth, and instability. *World Development*, 28, pp.1075-1086.
- Stiglitz, J. E.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 Subramanian, S. V., & Kawachi, I. (2004). Income inequality and health: what have we learned so far? *Epidemiologic Review*, 26, pp.79-91.
- Teachman, J. D. (1987). Family background, educational resources, and educational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pp.548-557.
-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e Werfhorst, H. G., Salverda W. (2012). Consequences of economic inequality: introduction to a special issue.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0, pp.377-387.
- Wilkinson, R. (1997). Comment: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cohes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9), pp.1504-1506.
- Wilkinson, R., Pickett, K. (2009).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NY: Bloomsbury Press.

Inequality and Social Risks: Applications of the 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

Hwang, Sun-Jae

(Chung 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various social problems or social risks from a theoretical, empi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rising income inequality not only lowers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and cohesion but also increases status competition among individuals, leading into various pathological and disintegrative social phenomena, I explain the increasing social risks in Korea and across the globe in relation to rising income inequality.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is hypothesis, I used the 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 developed by Wilkinson and Pickett,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a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s higher, so is the level of social risks measured by the Index. This result was particularly supported by a strong association found in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wenty-two countries, including Korea, but a similar pattern was also observed in a 20-year time-series analysis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what is required to effectively approach to various social problems and risks recently found in Korean society is to make an earnest effort to tackle the problem of rising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Keywords: Inequality, Consequences of Inequality, Social Problems, Social Risk, Index of the Health and Social Problems